

### 3. 전망

#### 중·일 양국 간 정치·안보적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

- 일본이 중국 측의 주장대로 센카쿠/다오위다오 지역을 분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희박한 바, 정치·역사적 접근으로는 영토분쟁 해결이 요원함
- 일본이 전시 침략에 대한 도덕적 부채의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역사문제를 접근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근대화 서열사관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대중(對中) 우월의식 손상
  - » 양국에서 극단적 민족주의 심화

#### 미·중 지정학적 대립의 맥락에서 중·일관계 긴장 지속

-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2015.4)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을 더욱 강조함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및 군대보유 추구에 맞대응 하여, 중국은 자국 영토에 대한 '핵심이익 수호 기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므로 상호존중과 타협이 어려운 상황임
- 중·일 간 정치·안보적 갈등은 세계적 및 지역 차원의 미·중 지정학적 대립과 구조적으로 연동되어있는 바,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움

#### '정냉경열(政冷經熱)'으로의 복원을 통한 관계 회복 노력

- 북한의 안보위협, 국제적 테러, 환경문제 등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중·일 관계 회복에 대한 인식도 재고될 것임
  - » 현재 일본 국민의 64.4%와 중국 국민의 63.4%가 정치·안보적 갈등 상황임에도 관계개선의 필요에 공감 (2014년 중·일 합동여론조사)
  - » 갈등의 장기화가 초래하는 지역안보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면서 관계개선의 당위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도 중·일 간 무력충돌에 연루되지 않으려 '위기관리' 강조
- 2010년 이후 형성된 정냉경냉(政冷經冷) 관계가 '정냉경열(政冷經熱)'관계로 복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새로운 실크로드 구상처럼 점차 확대되는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일본 경제계가 일본 정부에 대중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양국관계 개선 요구 배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및 군대보유 추구에 맞대응 하여, 중국은 자국 영토에 대한 '핵심 이익 수호 기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므로 상호존중과 타협이 어려운 상황임

2010년 이후 형성된 정냉경냉(政冷經冷) 관계가 '정냉경열(政冷經熱)'관계로 복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홍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올림픽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www.ajoupci.com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 CHINA WATCHING



## 중일 관계와 한국의 신중(慎重)외교

유현정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

2015. 6. 29 <제5호>

### 정책 제언

#### 미·중 지정학적 대립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 및 중국과의 안보 협력 수준 조정

-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 동맹체제의 약화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재추진 하는 등 낮은 수준의 군사안보협력 추진
- 그러나 한·일 관계의 지나친 강화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북·중·러 안보 협력 강화의 빌미를 제공 하는 바, 중국을 고려하여 한·일 안보협력의 속도를 조절
  - »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 태국, 호주처럼 미국과의 군사훈련에 중국을 참관국으로 초청하는 등, 한국이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협조하고 있다는 중국의 우려 불식 노력

#### 중·일관계가 '정냉경냉(政冷經冷)'에서 '정냉경열(政冷經熱)'로 복원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다자 협력을 활용한 한·일 관계 우회적 복원

- 한·일 관계 경색국면에서 중·일 관계가 경제적 측면에서라도 복원되면 한국의 입지는 약화
-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어렵다면, (소)다자 안보·경제 협력 추진 과정에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며 우회적으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시도
-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 제의(2014.11)와 같이, 한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여 역내 주요 안보·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소)다자 소통의 장 마련에 한국이 선도적으로 가교역할을 감당

####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한국의 안보 이익에 어긋나게 전개되지 않도록 미국과 일본을 설득·유도

- 아·태지역 미·중 지정학적 대립의 관점에서 미국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지지하고 있는 바, 한국이 이를 저지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한반도 급변사태 시 한국의 동의 없는 일본 자위대 개입 불가에 대한 미국과 일본 정부의 공약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차후 한·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또는 기자회견 시 이를 공식화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 태국, 호주처럼 미국과의 군사훈련에 중국을 참관국으로 초청하는 등, 한국이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협조하고 있다는 중국의 우려 불식 노력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어렵다면, (소)다자 안보·경제 협력 추진 과정에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며 우회적으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시도

한반도 급변사태 시 한국의 동의 없는 일본 자위대 개입 불가에 대한 미국과 일본 정부의 공약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차후 한·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또는 기자회견 시 이를 공식화

## 문제 제기

### 1. 중·일관계 개관

#### 국교수립 - 1990년대 중반 : 양국관계의 정상화와 안보문제 대두

- 1972년 9월, 중국과 일본이 중·일 공동서명(中日共同聲明)에 조인하고 국교를 정상화함  
» 중·소 갈등의 연장선과 미·중 데탕트 무드 속에 미·중·일이 소련을 공동으로 견제하고자 협력 추진  
» 일본은 중국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주요 자원 제공
- 1990년대 공산권 붕괴를 전후하여 일본이 중국을 점차 안보저해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함  
» 일본의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10년' 시작  
» 중국은 꾸준한 개혁개방정책으로 연 10%대의 고속경제성장을 구가하고, 태평양 주시

####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중반 : '정냉경열(政冷經熱)'

- 중국이 경제적·군사적 약진을 거듭함에 따라 일본 내 '중국 위협론'이 대두됨
- 일본 내의 '중국 기회론'과 '중국 위협론' 간 열띤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 악화로까지는 전이되지 않는 '정냉경열(政冷經熱)' 원칙이 유지됨  
» 수교 이후 양국이 쌓아온 경제적 신뢰관계 및 경제 상호의존 관계가 외교·안보적 갈등에 대한 방화벽(Firewall) 역할

#### 2000년대 중반 - 후반 : 우호적 양국 관계

- 2000년대 초반 일본의 대중수출 증대가 일본경제회복을 견인한 이래, '중국 위협론'이 약화됨
- 일본 민주당 정부가 대 중국 유화정책을 펼치면서, 양국 관계가 우호적 정점을 맞이하였고, "전략적 호혜" 관계 수립

#### 2010년 이후 - 현재 : '정냉경냉(政冷經冷)'

- 2010년 센카쿠/다오위다오 영토 분쟁이 촉발되면서 양국 간 정치·안보적 갈등이 심화됨
- 양국 간 정치·안보갈등이 경제영역에까지 투영되는 정냉경냉(政冷經冷) 현상이 나타남  
»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위축되는 추세  
» 일본은 보통국가화와 미·일 동맹 강화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입장 구체화

2010년 센카쿠/다오위다오 영토 분쟁이 촉발되면서 양국 간 정치·안보적 갈등이 심화됨

양국 간 정치·안보갈등이 경제영역에까지 투영되는 정냉경냉(政冷經冷) 현상이 나타남

### 2. 중·일관계 쟁점

#### 센카쿠/다오위다오 영토분쟁

-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사건(2010.9)을 계기로 센카쿠/다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재점화된 후, 양국 간 경제협력은 물론 제반 이슈들이 영유권 분쟁에 함몰되고 있음

#### 과거사 인식의 간극과 민족주의

- 아베 정권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부분적으로만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전쟁과정에서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
- 중국 시진핑 정부는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지도부의 태도를 전례 없이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음
- 과거사 인식의 간극이 넓어지면서, 양국에서 상대국에 대한 극단적 민족주의 감정이 표출됨  
» 양국 지도부는 국내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방관

####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구하고 미·일동맹 강화

-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역내 및 역외 안보 역할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음  
» 일본은 평화헌법의 재해석을 통해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
- 미·일 동맹 강화는 중국의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미국의 역내 문제 개입에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바, 중·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함

#### '정냉경냉(政冷經冷)' 심화

- 양국 간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정냉경냉(政冷經冷) 현상이 지속됨  
» 중국경제 및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 중일 간 2010년 GDP 역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 등을 통해 갈등 심화

양국 지도부는 국내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방관

미·일 동맹 강화는 중국의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미국의 역내 문제 개입에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바, 중·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함